

2024년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

2024. 5.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24. 5. 29.(수) 9:55~11:55
- ◆ 장 소 : 본관 5층 공용회의실
- ◆ 참석자 : 위원장 등 10명
 - 외부위원(8) : 김경미, 권준화, 박진아, 백령, 송종호, 윤형주, 홍채빈, 황혜신
 - 내부위원(2) : 정책기획관, 복지기획관
 - ※ 배석 : 조직담당관, 민간위탁심의팀장
- ◆ 진행순서
 - 안건 심의(총 9건)
- ◆ 상정안건
 -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등 9건
- ◆ 회의결과
 - 적정 8건, 심의보류 1건

□ 주요발언 내용

【10시 56분, 개회】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직담당관 000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8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구성한 후에 오늘이 첫 번째 회의입니다. 차기 회의부터 좀 안건이 많아지는데 오늘 한 9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한번 해보신다 하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5월 10일에 새로 위촉되신 위원님들 대상으로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때 참석하지 못하셨던 위원님께는 위촉장을 책상에다가 넣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나다 순입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000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동 박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000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동 박수!)

육아정책연구소 000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동 박수!)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000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동 박수!)

법무법인 정률 000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동 박수!)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000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동 박수!)

안진회계법인 000 회계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동 박수!)

한국행정연구원 000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동 박수!)

다음은 내부위원으로 000 정책기획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동 박수!)

<000 위원>

○ 잘 부탁드립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000 복지기획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000 위원>

○ 반갑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관련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총괄보고 드린 후에 앞으로 오늘 첫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님을 오늘 선임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주재로 신청된 위탁사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총괄보고입니다. 오늘 민간위탁 심의안건은 총 9건으로 신규

2건, 재위탁 5건, 재계약 2건입니다.

심의 진행은 해당 안건에 대한 민간위탁심의팀장의 요약보고, 예산담당관 팀장의 예산검토보고, 소관부서 질의·응답, 그리고 주심위원님의 검토의견 발표, 참석 위원님 간 논의·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 의결 유형은 적정, 조건부 적정, 심의 보류, 부적정, 총 4가지로 있고. 필요 시 적정에 권고를 붙이거나 이렇게 해서 의결하도록 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이해충돌방지제도와 관련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이해관계 유무 사전확인 및 회피 신청 안내, 위원회 개최 시마다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미리 심의·의결 회피 신청을 해 주시고, 자리에 놓인 청렴서약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신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회의 진행에 앞서 앞으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님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정방법은 민간위탁조례에 따라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뭐하시긴 하겠지만 일단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위원님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번

에 간담회도 하셨고 하셨으니까 이번에 위원장으로 모시고 해 주셨으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 연임하신 분이 한 분이신 걸로 알고 있어서 연임하신 분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 재청합니다.

<위원 다수>

-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러면 우리 유일한 재심위원님이신 000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000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000 위원>

○ 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그런 이의가 없으시니까 우리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대하고, 앞 쪽으로 모셔서 인사말씀 좀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어서 여기 제가 위원장 하면 다시는 안 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런 일을 잘 못 해서 누가 될 것 같아서 안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럼 지금부터 위원장님께 회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1>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사무형 재위탁)

<위원장>

○ 지금부터 2024년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으로, 사무형 재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심의팀장님의 요약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1번 안전에 대해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수어전문교육원은 충정로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무 추진근거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어언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탁사무의 내용은 수어 인구 확대 및 한국수어통역사 양성을 위한 수어교육 지원사업이고요. 금년 말 민간위탁이 완료될 예정으로 공모를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서울수어전문교육원은 수어교육 제공 및 수어통역사 양성을 위해서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사무 추진실적도 그동안 코로나도 있고 했지만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실적에 비해서 향후 목표량을 적게 좀 산출한 경향이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고요. 수어교육 수강 인원 중에 농인의 비율이 확인해 보니까 4.4%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예산담당관 팀장님의 예산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서울수어전문교육원은 '09년도부터 총 7회 동안 한 단체를 통해서 계속 위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 유일하게 한 군데 있는 곳이어서 이 위탁에 대해서는 적정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위탁시설들 중에 대부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만 반영을 해드리는데 지금 이 수어전문교육원 같은 경우는 호봉 상승분을 요구를 한 점입니다. 저희가 호봉 상승분을 반영을 해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차원에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호봉 상승분을 반영해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사업비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인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 일반인에 대한 수어 통역사분들에 대한 그런 전문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2년에서 '23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전문 과정에 대한 수강 인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기본과정이나 통역과정 등은 수강 인원이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이제 부서 관계자를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부서 입장)

〈위원장〉

○ 먼저 간단하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관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 수어전문교육원은 농인들을 위한 수어를 가르치고, 수어통역사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농아인협회에서 7번 민간위탁을 했었고요. 서울에서 전국 대비 한 30% 정도의 수어통역사 합격률을 자랑하고, 깔끔하고 성의 있게 가르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농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원 합격생 수가 2021년 17명, 2022년 5명, 그리고 2023년 13명인데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2024년 사업 중에 수업 중급교육 교재 개발, 그러니까 교육내용 개발하고 수어 어휘 초급 교재 개발이 있는데 이 예산은 전혀 없더라고요. 이 부분이 사업비 자체에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예산을 충당하실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업비에 보시면 강사비가 사업별로 상당히 좀 차이가 있

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관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 합격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어떤 분들이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반인 중에서 그냥 농인을 돕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본인이 농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배워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하는 수업만 듣다가 온라인 수업도 하면서 조금 더 문호를 넓혀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변은 늘어나지만 합격률은 조금 더 낮아질 수도, 그러니까 수강생 대비 합격률은 더 낮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전반적인 포션을 늘리는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전국 대비 합격비율 같은 것들이 또 눈에 띄게 좋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성을 믿고 계속 그렇게 운영하시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재 개발이나 강사비에 대한 세부내용은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겠습니다.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들 질문 있으십니까?

<000 위원>

○ 서울시에 일반 수어 가르치는 학원도 몇 군데나 있나요?

〈주관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 이게 영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부 청각복지관이나 복지법인에서 가르치는 강좌가 있기는 한데 강사 수나 대외적인 인지도나 여기서 많이 밀리는 편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농아인협회는 수어통역센터를 자치구별로 다 25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농아인에 대한 인원 파악도 괜찮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잘 편하게 활동하실 수 있을지 그 기반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교재 자체제작이나 관련 콘텐츠들을 만든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이러면 저작권 또는 소유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주관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 저작권은 요즘은 대부분 개발하는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과장님하고 같이 센터에 갔을 때 우리가 개발한 교재를 전국에서 많이 사용을 할 정도로 다른 데서는 그럴 여건도 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여기 서울에 인재들이 많아서 의존하는 바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예산을 통해서 그 콘텐츠가 개발이 되고, 다만 그 개발된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시에서 가져가지 못하고 콘텐츠 창작자가 가져간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요.

〈주관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 그런데 이게 어차피 공익을 위해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인세를 받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그건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서 관계자는 퇴장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관부서 퇴장)

〈위원장〉

- 제가 검토의견을 말씀드릴 순서인데요, 저는 그냥 걱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담당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아인 비율이 낮아지는 것, 그리고 기본과정, 통역과정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적어지는 것, 이건 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어교육은 각 구에 수어통역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여기는 약간 전문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어통역사가 되는 길을 가려면 여기

서 교육 받으면 되죠.

혹시 저와 의견이 다르신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러면 권고를 붙여주시면 그게 계속 부서에서 확인이 되고, 의회에서도 그걸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좀 더 이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네, 그럼 권고가 좋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권고 내용은 아까 말한 대로,

<위원장>

- 아까 예산담당관이 말씀하신,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예산담당관에서 말씀하신 인건비 편성 부분하고,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기본과정, 통역과정 등 수강 인원이 감소한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위원장>

○ 합격자 수도 줄어드는 것에 대한 것.

<000 위원>

○ 너무 많으신 것 같기는 해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이게 조건부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만 명기되는 것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겨라 하는 취지로 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그다음에 수강 인원 증가 노력, 합격자 수 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 필요 정도로 권고 정도로 붙여서 걱정 의견 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1번 인건을 권고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으신가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걱정 권고.

<위원장>

○ 네, 걱정 권고. 이의 있으신가요?

<위원 다수>

○ 없습니다.

〈위원장〉

- 없으시면 1번 안건은 적정 권고로 의결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안건 심의하는 데 13분 걸렸습니다. 딱 이 수준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안건2〉 가족이야기박물관(가칭) 관리 및 운영(시설형 신규)

〈위원장〉

- 두 번째 안건은 양성평등담당관의 “가족이야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으로, 시설형 신규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심의 팀장님 요약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2번 안건에 대해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가족이야기박물관은 창신동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신규로 조성하려는 사업이고요. 추진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있습니다. 위탁 예정기간은 내년 3월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서울가족이야기박물관을 관리·운영하는데요, 가족 전문 서가 및 맞춤형 가족문화 프로그램 운영, 서울가족이야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그리고 시민참여형 가족갤러리 기획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해당 사무는 서울시민의 가족 이야기를 수집·활용

하여 가족의 가치를 기여·확산하고,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고요. 사회적 인간관계의 단절, 인간 고립의 심화 등으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가족의 가치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사무의 내용을 보면 시설을 이용한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종로구라서 이게 서울 한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다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서 확산하는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팀장님의 예산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서울가족이야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은 지금 현재 과거에 여담재로 운영이 됐던 종로구 창신동, 거의 낙산공원 근처에 있는 아파트 한가운데 있는 옛 원각사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예전에 서울 여담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사 공유공간으로 활용이 됐었고요, 이 공간의 경우에도 '23년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시 지적사항 중 하나였던 사업의 정책성 및 방향성이 없었다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가족이야기 역시 여전히 가족의 가치를 위한 역사라든지, 또 도서관, 전시공간으로 활용 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이 시설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민간위탁을 지금 제출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제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창신동 이 공간에 위치한 부분은 아파트 사이에 있고요, 또 접근성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을 위한 전시공간이라든지 박물관으로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공간입니다. 또한 아파트와 연결공간도 굉장히 좁은 공간에 있어서 다양한 분들, 또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으로는 굉장히 부적합한 공간입니다. 또 공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서관이라든지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전에도 이미 여담재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 또 박물관,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용자가 별로 없었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가족의 가치가 굉장히 상승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서울시에는 여성가족재단이라든지, 또 가족센터들이 각 자치구와 또 광역센터로 있기 때문에 그곳을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가족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신규로 제출된 그런 민간위탁은 오히려 예산 낭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혹시 죄송한데 여담재는 지금 이용되고 있나요?

〈소관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아니요. 지금 여담재 전에도 민간위탁을 운영하다가,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작년 10월 달에 종료됐습니다.

<위원장>

○ 그냥 클로징 된 거예요?

<소관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예. 지금은 폐쇄돼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지금은 그 공간이 비어있죠. 그래서 약간 부연설명 드리면 그 공간이 비어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민원도 나오고 그래서 부서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어떻게든 공간을 활용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지금 새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부서 관계자를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은 들을 필요 없이 그냥 질의할까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네, 그냥 하셔도 됩니다.

(주관부서 입장)

<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님 먼저.

〈000 위원〉

○ 혹시 지금 제출하신 이런 사업과 같은 성격의 사업들을 서울시 여가재단이나 가족센터 등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뭔가 전시를 한다거나 가족의 가치에 대해서 홍보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센터들이 혹시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주관부서〔양성평등담당관〕〉

○ 「건강가정지원법」에 따라서 가족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역사와 결합한 가족친화사업, 인식 개선을 하는 사업은 유사 사업은 없습니다.

〈000 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형성이 되는데 그것을 좀 보편화해서 찾을 수 있는 가치라는 게 되게 추상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실 생각이신지가 궁금합니다.

〈주관부서〔양성평등담당관〕〉

○ 가족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본인의 경험에서 오는 긍정적인 가족의 가치도 있을 수 있고 부정의 가치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잃어버리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그 가치에

대해서 제시해 주고 기억해 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000 위원>

- 그리고 가족의 역사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구현을 할 지가 조금 저는 상상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족 제도의 모순이나 나쁜 점들도 많이 있었는데,

<주관부서 [양성평등담당관]>

-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할 것이고요. 현재 노인들이 돌아가시거나 오래 되신 분들은 구술사 위주로 자료를 수집해서 년 한 100건 정도 할 예정이고요. 젊은 분들한테는 가계도를 한다든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것이고. 오래된 가족에 대해서는 문헌이나 그런 자료들을 통한 가족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000 위원>

- 여기 아카이브 형태로 기록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수집은 좀 하시고 계신가요?

<주관부서 [양성평등담당관]>

- 지금 여기가 저희 시설입니다. 여담재가 지금 비어 있고요, 현재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시설입니다.

<000 위원>

- 말 잘라서 죄송한데, 도서관이나 기록관으로서 혹은 박물관으로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컬렉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컬렉션에 대한 건 아직은 안 돼 있고, 공개 위탁해서 그분들이 컬렉션부터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주관부서 [양성평등담당관]>

- 네, 거기는 법인을 그런 경험이 있고 할 수 있는 단체를 모집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000 위원>

- 간단한 건데 혹시 오류인가 해서요. '25년 예산이 세부내역을 보면 10개월로 잡혀 있거든요. 기본급도 10개월이고. 이 이유가 있는 건가요?

<주관부서 [양성평등담당관]>

- 예산이 확정되고요,

<000 위원>

- 그럼 내후년에는 또 12개월로 더 늘어나는,

<주관부서 [양성평등담당관]>

○ 네.

<000 위원>

○ 네, 알겠습니다.

<000 위원>

○ 그럼 1인 가구도 가족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주관부서 [양성평등담당관]>

○ 네, 다양한 가족형태를 전부 다 포함할 예정입니다. 1인 가구도 포함입니다.

<000 위원>

○ 운영목적이 굉장히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가족의 가치를 기여·확산하고,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런 공간을 만든다고 했는데 운영목적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서 사실 이 시설의 운영 효과성이 과연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퀘스천이 계속 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운영을 해야 되는 목적, 타당성, 당위성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관부서 [양성평등담당관]>

○ 가족 가치라는 게 좀 추상적이라서 그 타당성과 구체성을 지금 말씀,

〈000 위원〉

-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사실 이게 서울시민의 가족 이야기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어떤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의 역사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통에 초점을 뒀다 해서 옛날 가족들이라든가 뭔가 스토리를 가지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이 사업의 운영 효과성이 있을 것이라는 퀘스천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의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서 과연 이걸 운영을 하고 나중에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사업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요.

〈주관부서 [양성평등담당관]〉

- 지난번에 시설을 했을 때도 성과가 미흡해서 운영을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가치라는 게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는 추상적 가치로 볼 수 있지만 저희가 그려낼 수 있는 사업들은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아카이브를 기록을 보존하는 것들로 전부 다 구체화돼서 성과물이 나올 수 있게 할 겁니다. 지난번에는 성과물이 좀 빈약했습니다. 전시는 많았으나 성과는 3년간 연구성과가 5점에 부족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열린 오픈 공간을 마련을 해서 시민들한테 계속적으로 기록물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관부서 (양성평등담당관)>

- 감사합니다.

(주관부서 퇴장)

<000 위원>

- 저는 처음에 서면 봤을 때는 어쨌든 필요한 가치고,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지리적으로 너무 이게 접근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평가에도 써 있었지만 여기가 지역도서관인지 예전 사업 평가에 모르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기록을 하는 건 중요한데 또 지금 듣다 보니까 이게 뭔가 지금 컬렉션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위탁할 수 있는 데가 있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건부 적정으로 판단을 했던 이유는 어쨌든 필요한 가치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지역사회 내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먼저 이용을 많이 하는 가운데 전시적인 걸로 시민에게 확대하는 방안의 어떤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조건부 적정을 했는데 지금 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담당관님 말대로 이게 지금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소관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저는 어떻게든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가족센터랑 업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가요?

〈소관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계속 부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사에 대한 역사 발굴, 그 역사자료를 아카이브로 만들고, 그걸 전시를 하거나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미 지리적인 위치 자체가 시민들에게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시공간이라 하기가 굉장히 취약한 지리적 약점도 있고요. 또 사실 그런 아카이브를 만들고 하는 것은 저희 여성가족재단에서 해도 되는 부분이고. 또 가족 문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저희 가족센터들이 25개 자치구에 각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로 소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가족센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가족센터는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로 접근이 되고요. 약간 유형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상담하는 그런 기능이고. 여기는 상담기능보다도 좋은 쪽 방향을 부각시키는 기능이라서 차별성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좀 더 다듬을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보입니다.

〈000 위원〉

- 저는 일단 주관기관이 여성담당관으로 되어 있고, 법령상 근거가 맨 처음에 들고 나온 게 「양성평등기본법」이거든요. 두 번째가 「건강가정기본법」인데 밑줄은 가족 친화, 민주적 가정 형성, 그 다음에 양성 평등한 가족가치라고 말한 다음에 1인 가족도 된다고 말하고 있어서 그 자체가 지금 모순인 것 같고, 앞뒤가 안 맞고. 자기들도 가족이 뭔지 모르고 있으면서 공간이 비었다, 써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비었다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일체 없거든요.

그리고 성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게 좋은 가정이야. 이렇게 해.’ 그래봤자 우리가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너무 중복적인 박물관도 역사 쪽에서도 가족에 대한 것을 다 하고 있고, 여성에 대한 것 박물관, 도서관 각각 다 하고 있거든요. 좀 예산 낭비 같아서 여담재에 딱 맞는, 그 시설에 맞는 다른 사업을 다른 부서가 갖고 오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저도 동의하는 바고. 지금 10개월에 7억 5천이면 1년으로 하면 9억 이니까 거의 1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고, 공간이 이미 있는 상태고, 자립형이 오히려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효과도, 목적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비효율적인 기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럼 이게 심의 보류가 아니라 부적정인 거죠?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러니까 걱정이나 조건부 걱정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이걸로는 위원님들 말씀은 아닌 것 같으시고. 좀 더 사업 계획을 보완해서 다음에 한 번 다시 심의를 하자 하시면 심의 보류하시고. 아니고, 이 사업은 정말 안 된다. 그러면 부적정 하셔야 되고.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간의 사례를 보면 처음부터 부적정 한 건은 거의 없었고요. 한 번 심의 보류해서 다음 번에 들어왔는데 그때도 아니다 싶으면 그때 부적정을 하고.

〈000 위원〉

- 이걸 두 번째로 들어온 건가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지금 처음 들어온 겁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이번에 부적정 해버리면 아예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이라서 그래도

다음 번 회의 때 한 번 더 얼마나 준비해 오는지 보시고 결정하시
겠다 하면,

〈000 위원〉

○ 그런데 법적인 근거는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소관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법적인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000 위원〉

○ 있기는 있는데 자기들조차도 이걸 양성평등을 먼저 지금 내세우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매칭이 살짝 안 되는 것 같아요.

〈소관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지금 안 맞는 걸 갖고 와서 법적 근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000 위원〉

○ 그러니까 양성평등을 맨 앞에다 내세우고, 가족 친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정말 다양한 활동을 놔두고 굳이 이것을. 사실 우선
순위의 문제에서도 과연. 그러니까 돈을 좀 아끼면서 가는 것이 좋
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000 위원〉

○ 어쨌든 여성실에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단

칼에 이렇게 그냥 부적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하고 그걸 다음에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전체적인 의견이 2번 안건을 심의 보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다수〉

- 없습니다.

〈위원장〉

- 없으시면 심의 보류로 의결하겠습니다.

〈000 위원〉

- 저 결정에는 동의하고 그냥 덧붙이고 싶은 것은, 여성이랑 가족으로 지금 저출생 문제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특수성도 반영해서 예를 들면 가족 다양성이라든지 주거공동체라든지 이런 용어를 써서 좀 현실적으로 맞는 네이밍과 박물관이라는 건 계속 유지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주거공동체 혹은 사는 사람들이 꼭 가족이 아닌 방식으로 지금 서울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층을 타겟으로 해서 꼭 가족이 아니어도 사실 지금 좀 심하게 말하면 애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가족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취지에 맞게 하려면 차라리 가족 다양성이나 주거공동체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소관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저도 하나만 좀 덧붙이면, 사실 그런데 그 현장의 위치 자체가 앞으로 부서가 프로그램을 조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아니면 또 프로그램을 조금 더 명확화 해서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위치 자체가 아파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다니는 게 산 위로 다니는 마을버스인데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전시공간이나 박물관, 도서관 이걸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한번 위치도 다시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000 위원>

- 그런데 어쨌든 저는 내부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단칼에 자르면 그쪽에서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한 번 더 고민하게 하고.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예산을 긴축해야 되기 때문에 엄격하십니다. 다음 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부적정 하시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 여기 오신 분들이 다음에 다 오셔야 될 것 같아요.(웃음)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네, 꼭 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건3〉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시설형 재위탁)

〈위원장〉

○ 이제 3번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안건은 정신건강과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으로, 시설형 재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심의팀장님의 요약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3번 안건에 대해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혜화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울의료원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공모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하고자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13페이지 하단에 추진경과를 보시면 2005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하다가 두 번 유찰이 돼가지고 서울의료원에서 한 경우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설치된 광역기관이고요, 자치구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외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올해 실시한

종합성과평가에서 재계약이 안 되는 좀 낮은 점수를 받아서, 그런데 재위탁으로 진행을 해도 이 서울의료원이 다시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좀 기록을 해놨는데, 종평에서 지적 받은 내용에 대해서 주관부서 차원의 개선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보고 부탁드립니다.

〈소관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앞서 조직과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저희 시가 운영을 해야 되는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따라서 이 센터에 대해서는 위탁을 재위탁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것 같고요.

다만 인건비 같은 부분에서는 부서가 조금 과소 추계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추후에 추가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24년 대비해서 '25년도에 운영비 상승률을 4.9%로 물가상승률을 조금 높게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후에 동일한 사업들과 유사하게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한 지금 정신건강 예방사업 내 블루터치 홈페이지를 지금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대한 기능개선비 5억 원 정도를 반영을 했는데, 이 홈페이지 고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러한 사업 계획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 부서 관계자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주관부서 입장)

<위원장>

○ 저희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2025년도 인건비를 올해보다 더 적게 잡으신 근거가 어떤 것인가요? 예산(안) 관련된 질문입니다.

<주관부서1 [정신건강과]>

○ 저희가 작성하면서 좀 착오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국비 인력하고 시비 인력으로 나눠져서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 인력 인건비가 저희가 46명분이 반영해야 되는데 5명분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실제로는 한 4억 7천 정도 더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000 위원>

○ 그다음에 역시 예산(안) 관련된 부분인데요. 유달리 보니까 강사료, 관련자 양성회의 다과비, 이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워크숍을 간다, 그 동료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워크숍비 같은 게 또 있고, 또 약간 이름으로는 유사해 보이는 사업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운영, 동료지원가 역량 강화 교육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동료지원가 자조모임, 동료지원가 네트워크 간담회 등등 그 속성이 어떻게 네트워크 간담회와 자조모임과, 물론 외부 사람 몇 명 더 부르면 네트워크가 되고, 자기들끼리면 자조모임이고, 간단하기는 한데 이렇게 자주 만나기만 하지 ‘그 사업은 언제 하지?’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주로 먹고 마시는 게 조금 과도하게 많아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 차이가 뭔지.

그다음에 인건비 설명해 주셨는데, 직접 고객 대상으로 사업하시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작아 보여가지고 그런 부분을 혹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습니다.

〈주관부서1 (정신건강과)〉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자체가 주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초센터가 지금 25개소가 있는데 그 25개소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이라든지 네트워킹이라든지, 아니면 평가라든지, 주요한 업무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주거지원과 관련된 것을 하고 있고, 그다

음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정신질환자 권익 옹호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별로 보시기가 조금 난해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일단은 큰 틀에서는 주로 기관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회의가 많은 것이고요.

동료지원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역사회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저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권익 차원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것이 광역센터가 유일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지원가는 저희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사실은 자립을 해야 되는데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자립도 제대로 못하고 배회하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들을 교육을 통해서 기관 같은 데에다가 저희가 연계를 해서 직업을 갖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는 한 100시간 정도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유사한 기관에 프로그램 보조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사무관리라든지 이런 간단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대로 지원하는 양성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역량강화는 이들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돼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 기관들한테 저희가 직업을 구하려면 기관들하고도 수시로 네트워크 회의를 해야 돼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예산서에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정밀하게 다시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실까요?

〈000 위원〉

- 보니까 예전에 유찰도 되고, 평가결과나 지적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병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약간 그런 입장인가요?

〈주관부서1 [정신건강과]〉

- 네, 맞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지역 사회에 완전히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 하시려고 하시기는 합니다.

〈000 위원〉

- 그런데 병원도 1차, 2차, 3차 병원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게 타겟하고 있는 급의 병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넓혀보실 시도를 하신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주관부서1 [정신건강과]〉

-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사실은 서울대병원처럼 아주 큰 공공기관에서하기를 바라는데 서울대학병원도 사실은 고사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서울의료원이 말을 때도 여러 기관을 다 1대1로 컨택을 했는데 다 고사를 하셨고, 결국은 저희 출연기관에서 맡게 되신 상황입니다.

〈000 위원〉

- 상급병원들만 접촉을 하신 건지, 아니면 좀 더,

〈주관부서1 (정신건강과)〉

- 1차적으로는 3차 종합병원만 했고요. 그다음에 안 돼서 저희가 2차 기관들도 알아보는데, 사실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비상근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오신다고 하지만 직원이 굉장히 많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올인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도 본인이 성과를 내셔야 되는데 광역에다가 완전히 업무를 다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병원에서 안 하신다고 하십니다.

〈000 위원〉

- 그럼 다시 재공고하면 또 서울의료원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잖아요?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세요?

〈주관부서1 (정신건강과)〉

- 일단은 저희가 좀 그동안에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히 체크를 하고요. 저희 인력들도 사실은 저희 정신건강과가 작년에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동안에는 담당자가 계속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바라기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비상근 센터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근 센터장 체제로 전환을 해보려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평가는 어떤 외부 기관이 하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직접 하시나요?

<주관부서1 [정신건강과]>

○ 내부기관에서도 하시고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하시고 계시고, 저희는 주로 지도점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럼 그 지표나 이런 내역에 대해서는 합의하셔서 이후에 발전방안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라고 하면 되고, 서울의료원이 좀 버겁게 참여해 주시는 것이라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주관부서1 [정신건강과]>

○ 네.

<000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서 관계자는 퇴장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관부서 퇴장)

〈위원장〉

- 주심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저는 지금 적정에 그냥 권고 붙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 (안) 부분하고, 사업을 조금 더 명확히 하고. 그게 예산하고 아귀가 맞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권고를 하신다면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계획 마련 및 예산 관련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화.

〈000 위원〉

- 그다음에 인건비 조금 제대로 수정이 필요하시고.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런 식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 의견을 붙여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3번 안건을 적정 권고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위원 다수〉

○ 없습니다.

<위원장>

○ 없으시면 걱정 권고로 의결하겠습니다.

<안건4>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관리 및 운영(시설형 재위탁)

<위원장>

○ 4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신건강과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관리 및 운영”으로, 시설형 재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심의 팀장님의 요약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4번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는 서울 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추진근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요. 현재 명지병원이라는 곳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앞전 사업과 마찬가지로 금년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공모를 통해서 위탁기관을 새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추진경과를 보시면 '16년 3월 달에 민간위탁으로는 최초 위탁이 되었는데요 2009년부터 조금 전에 심의하셨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기관리팀으로 있던 것을 자살예방센터로 승격을 한 이후에 2016년에 이것을 별도 사무로 분리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현재 수탁기관은 '19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는 24시간 상담전화를 운영하고요, 자살 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그리고 자살예방센터도 마찬가지로 자치구 보건소에 그 기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통합하는 그런 자살예방사업 기술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이태원 참사 대국민 심리지원 상담과 그리고 '22년에는 전년 대비 2.3배 증가된 출동 상담 진행 등을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합 평가평가 결과가 매우 낮아가지고 종평 지적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팀장님의 예산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거해서 운영 위탁을 해야 하는 법정 시설입니다. 때문에 이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재위탁을 하는 부분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사안이고요.

다만 사업비 측면에서는 자살 대응 출동업무 이관이 앞서 보고드렸던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24년 6월 달에 이관이 됩니다. 따라서 그 사업비가 이미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여전히 예산으로 지금 기재가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외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는 사안이 '21년도 때 자살 출동업무 때문에 구로구에 있다가 서울역 근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을 함에 따라서 월 임차료를 3,200만 원씩 납부를 하는 등 '24년 기준으로 연간 3억 8,700만 원의 임차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4년도 6월에 이 자살 대응 출동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긴급한 소요가 없기 때문에 이 임차료를 좀 낮출 수 있는 기관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또 임차료 부담 경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24시간 상담전화 응답률이 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응답률 제고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서 관계자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주관부서 입장)

〈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님.

〈000 위원〉

○ 실제 대응하시는 전문가분들, 상담자분들의 소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나 프로그램이 잘 운

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관부서2 (정신건강과)〉

- 지금 마음이음 상담전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담사분들이 18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현장출동업무하고 병행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현장업무도 과중되고, 그러면서 응답률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현장출동은 별도의 합동대응센터에서 현장출동을 전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응답률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해가지고 감정 소진이 너무 크니까 그러면서 이직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현재 근무형태를 지금 현재 교대직에서 스케줄화를 해가지고 그런 변경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가장 추구하는 바는 인력 보강을 통해서 보다 휴식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응답률도 높일 수 있는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 혹시 다른 위원님.

〈000 위원〉

- 현장상담사들이 실제로 응답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 때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관부서2 (정신건강과)〉

-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깊게 고민은 하지는 못했는데요,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한번 그쪽 노조지부장님하고, 상담사분이시거든요. 같이 얘기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인력이 필요하다.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인력이 현장으로 나가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또 발생했으니까 내년 민간위탁 공모 시에는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상담사분들을 좀 더 충원하게끔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근무환경 관련해가지고 현재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3교대?

〈주관부서3 (정신건강과)〉

- 원하는 것은 원래 그쪽에서는 조별로 한 5조로 나누어서 3교대로 근무를 돌아가는데 현재 인원이 없다 보니까 3교대 시스템으로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5조 할 때는 직원들이 바로 옆에서 상담팀장님이 옆에 있으면서 계속 전화 오는 상담내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슈퍼비전을 주면서 운영을 했었는데 3교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어서 계속 상담사분들은 인력을 보강해서 5조 시스템을 계속하게 해달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000 위원〉

- 예산 집행이 4/4분기에 집중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계절성,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나요?

〈주관부서3 [정신건강과]〉

- 예산 집행은 저희가 자살예방의 날 행사 같은 프로그램하고 유족의 날 행사 프로그램들이 행사가 하반기, 그러니까 4/4분기 쪽에 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그쪽으로 몰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많이 행사 부분을 상반기 쪽으로 당겨서 운영하려고 지금 조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000 위원〉

- 자살 상담은 전화상담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살충동을 느꼈을 때 찾아가면 대면상담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주관부서2 [정신건강과]〉

- 보통은 지금 자살예방센터에서 주력하고 있는 것은 24시간 전화상담을 하고 있고요. 주간에 보통 방문을 하시니까 그것은 자치구에 있는 기초센터로, 거기엔 정신전문요원이 있고 자살예방센터에서 나가서 관련된 상담교육도 하고 있으니까요 방문상담은 기초센터에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또 하는 게 마음이음 상담전화도 있고, 또 자살 유족에 대한 그것은 직접 현장을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유족분들이 오셔서 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런데 어디서 봤는데 밤에 자살충동을 느끼면 어디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주관부서2 [정신건강과]〉

- 그것은 저희가 현장출동을 병행하고 있어가지고요 위급한 상황에는 저희가 합동대응센터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바로 경찰분하고 같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자살고위험군은 보통 판정을 하든지 분류를 어떻게 해요?

〈주관부서2 [정신건강과]〉

- 지금 저희가 규정상으로 돼 있는 것은 자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시도한 사람하고, 그리고 자살 유족. 자살 유적이 일반인보다 8배 이상 자살 위험이 높다고 그렇게 연구결과 나온 게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심리상태와 관련해가지고 우울증 검사를 하거든요. PHQ9을 하는데 간단하기는 하지만 그게 10점 이상이면 저희가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해가지고 자살고위험군은 아니지만 그것도 별도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000 위원〉

- 그럼 시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어떤 형태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나요?

〈주관부서2 (정신건강과)〉

- 보통은 시도자가 발생할 때 응급실에 방문을 하면 응급실에 국가에서 하는 정신전문요원이라든지 배치가 돼서 하는 관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개인정보를 받아가지고 자살예방센터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5주면 5주 해가지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그 자살 시도자분께서 이런 관리하는 체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동의를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라포 형성을 통해가지고 친밀하게 해서 좀 높이려고 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사례관리를 센터 직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이관이 되는 건가요? 누가 그것을 해요?

〈주관부서2 (정신건강과)〉

- 경찰서에서 인적사항이 통보가 오는데 그것은 기초센터를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 그럼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서 관계자는 퇴장하

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주관부서2 (정신건강과)〉

○ 감사합니다.

(주관부서 퇴장)

〈위원장〉

○ 주심께서는 검토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 저는 적정으로 판단을 했는데, 앞에 조직담당관 선생님과 예산담당관 선생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걱정 권고가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내용은 재계약 배제 점수를 받은 만큼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두 가지 사업비 예산과 서울 중심부 아까 얘기해 주셨던 업무이관 관련한 임차료 이 부분 예산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제 의견으로는 어쨌든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현장의 상담사분들일 텐데 이분들 소진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4번 안건을 걱정 권고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적정 권고로 의결하겠습니다.

<000 위원>

- 죄송한데 하나 제가 이걸 디테일을 몰라서. 4/4분기에 진짜 행사가 많은지를 체크하고, 행사가 실제로 많지 않다면 연말에 예산을 소진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위원장>

- 그것도 권고사항에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네, 추가를 하겠습니다.

<안건5>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사무형 재계약)

<안건6>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사업 운영(사무형 재계약)

<위원장>

- 그러면 바로 안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6번 안건은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의 “한생병관리사업 운영”과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사업 운영” 으로, 모두 사무형 재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심의팀장님의 요약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5번과 6번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은 「서울특별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요,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가지가 좀 헷갈리실 텐데 한센병관리사업은 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올해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며 현재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이것도 추진 근거는 같고요. 이 사업은 한센인 대상의 방문지도, 한센 어르신 평생교육 등 약간 복지증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자체가 앞에 것은 5억 정도고 이것은 7천만 원 정도로 좀 작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89년부터 민간위탁방식으로 한센인에 대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센병관리사업은 동작구에 있는 장승배기역 인근에 있는 피부과 병원입니다. 거기에서 이 사무를 운영하고 있어서 사무형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사업은 수탁기관인 한국한센총연합회는 한센인이 조직한 자율복지단체로 한센인과 라포 형성이 되어 있어서 민간위탁 재계약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걸 검토하면서 수혜 대상이 동일하고 사업도 좀 유사해 보여서, 사업명 자체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봤는데, 질병관리청의 ‘한센병관리사업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각각의 법인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해놓고 있고 우리 시도 거기에 따라서 두 군데 기관에 각각 수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지금 두 개 기관이 위탁법인이 다른 건가요?

<소관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네, 두 개가 다릅니다.

<위원장>

○ 한샘복지협회랑,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한센총연합회.

<위원장>

○ 그럼 지금 이 피부과에서는 다른 피부과 의료도 하고 이 한센인,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일반인도 받더라고요.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예산담당관 팀장님의 예산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조직과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한센병관리사업과 또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사업은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위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사업의 성격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추진함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피부과 치료라든지, 또 정기검진, 재활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건비나 또 장기적인 운영이나 지원을 위해서는 사실 위탁이 조금 더 취지에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한센병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센복지협회가 맡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센인 현황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더 수가 적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2억 원 정도를 더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좀 확인을 해봤더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한센복지협회를 위해서 사실 3억 원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한센인 현황을 고려를 해서 추가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잡혀 있는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운영비 이런 쪽에서 낭비가 없도록 구체적인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센인 복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센총연합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기방문이나 지도, 또 아니면 정착마을에 대한 관리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7천만원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서 관계자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부서 입장)

<위원장>

○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바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관부서1 [감염병관리과]>

○ 안녕하세요?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장 000입니다.

<주관부서2 [감염병관리과]>

○ 안녕하세요? 감염병관리과 한세병관리사업 담당자 000입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질의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님.

〈000 위원〉

- 권리 및 복지증진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이것은 한센인들 자활조직에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인원들이 4명이 있는 것 같은데 다 한센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주관부서1 (감염병관리과)〉

- 네, 다 한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00 위원〉

- 권리 및 복지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반사람들한테도 한센인에 대한 오해나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냥 일반 유관기관하고 접촉을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제약이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주관부서1 (감염병관리과)〉

- 그런데 이분들이 이 사업을 여태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가 외면적으로 보기에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성도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접촉해서 업무를 하는데는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00 위원〉

- 보니까 고령이시더라고요. 평균연령이 76세인가 그러신데, 그러면 지금 구성원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주관부서1 (감염병관리과)〉

- 대부분 고령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그중에 2세 분들이 좀 계시기는 합니다.

〈000 위원〉

- 젊으신 분들도 있으신 건가요?

〈주관부서1 (감염병관리과)〉

- 비율은 낮습니다. 고령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000 위원〉

- 이게 거의 30~40년 동안 한 기관에 위탁이 돼 있는 상태인 것이 짱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은 사업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유입되는 환자들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도 좀 효과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주관부서1 (감염병관리과)〉

- 안 그래도 올해 사업평가에 그런 개선사항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도 한센인총연합회랑 해가지고, 원래 검진 자체를 한센복지협회에서 외국인 유입 환자들에 대해서도 검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검진

이 결과가 나오면 이 총연합회에서도 같이 정보를 공유를 해서 외국에서 유입된 한센병 환자들을 같이 관리를 해 주시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기관하고 네트워크를 좀 더 확장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자 그렇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000 위원〉

- 아까 지적하셨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편성된 구체적인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는 한 3억 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인원 수에 비해서 한 5억 3천 이 정도씩 관리사업 부분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주관부서2 (감염병관리과)〉

- 그것은 제가 말씀하셨던 그 지자체하고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게 직원도 거의 비슷하고 환자 수는 거기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작았던 이유가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재정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곳들은 광역시 같은 경우에 그 밑에 있는 다른 시·군·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민간경상보조로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경상북도의 경우에 경북에서 2억을 지원하지만 대구광역시에서 또 같이 지원돼가지고 민간위탁이랑 민간경상보조로 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저희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000 위원〉

○ 여기가 입찰을 하면 다른 기관에서 들어오나요?

<주관부서2 (감염병관리과)>

○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000 위원>

○ 그동안에 그래도 한 번 주기적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주관부서2 (감염병관리과)>

○ '21년도에 재위탁 공모를 한번 해봤는데요 들어오는 기관이 없어서 결국은 재공고를 해서 이 기관이랑 재위탁을 하게 된 거예요.

<위원장>

○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서 관계자는 퇴장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관부서1 (감염병관리과)>

○ 감사합니다.

(주관부서 퇴장)

<위원장>

○ 주심위원님께서서는 검토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 이게 사업목적과 대상이 특수성이 있고, 또 대상 인원이 470명 정도로 좀 소수인 측면도 있고, 좀 전문성이 필요한 측면도 있어가지고 민간위탁에는 적절하다고 보고. 보니까 평가나 점수 같은 것도 다 기준점수 이상을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안이 약간 없는 것 같아요.

<000 위원>

- 너무 고령이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 혹시 주심위원님이 권고를 주셨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5번 안전을 걱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5번 안전을 걱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역시 6번 안전을 걱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위원 다수>

- 없습니다.

<위원장>

- 없으시면 역시 6번 안전도 걱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안건7〉 (동부·남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 및 운영(자립형 신규)

〈위원장〉

- 이제 7번 안건 하겠습니다. 7번 안건은 도로관리과의 “(동부·남부)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 및 운영”으로, 자립형 신규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심의팀장님의 요약보고를 듣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7번 안건에 대해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남부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 운영 건입니다.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에 있습니다.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도로사업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이었는데요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신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무입니다. 위탁 사무내용은 테니스장 이용자 예약관리 및 이용료 징수, 그리고 강습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이고요.

사업비의 경우 원가분석을 했을 때 연간 지출 대비 수입이 더 많아서 자립형으로 운영하고요, 사업 수입은 정산을 거쳐서 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테니스장을 민간에 맡겨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여기가 처음은 아니고, 한강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 데요 거기는 사용허가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 건의 경우에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강 테니스장은 공개된 공간에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는 반면에

이것은 도로사업소 부지 안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사업소는 특성상 차량이 빈번하게 운영하고 그래서 그 운영하는 업체와 시 주관부서 간의 협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용자방식으로 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이나 지도점검 등을 하지 않고, 그리고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업체가 들어오면 그 해당 기간 동안에 수익을 내는 시설로 그냥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게 저희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른 테니스장의 경우 예약 관련된 민원이나 언론 지적 사례를 봤을 때 특정한 단체들만 사용한다, 예약이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그 업체의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 그 부담 자체를 줄여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도록 특정 단체나 특정 개인이 독점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팀장님의 예산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소관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예산4팀장 000입니다. 동부와 남부 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을 공개 개방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 예산부서는 자립형 민간위탁이라서 추가적인 소요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다만 민간위탁의뢰서에 보면 한 면당 이용료 산정 자체가 조례상 부과할 수 있는 최고치인 2만 원으로 계획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른 한강공원이나 일반적인 공원에서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받는 금액보다 조금 과다한 측면이 있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위원장>

○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관계자를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주관부서 입장)

<위원장>

○ 부서 관계자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주관부서 (도로관리과)>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도로관리과고, 도로사업소의 전체적인 관리와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책임기관으로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장 000입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안녕하십니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자가 도로관리과가 있고, 그다음에 수탁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로관리과에서는 유희부지를 활용해서 수입이 비용을 초과할 경우 일정 부분 경제적 효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럼 수탁기관에서는 어느 정도의 어떠한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는지가 궁금합니다.

〈주관부서 (도로관리과)〉

- 지금 수탁기관은 운영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수탁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는다고, 저희가 수탁기관에게 어떤 이익과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 도로사업소에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한적으로 직원들만 업무 외 시간 내에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동부도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민원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아주 제한된 주민들만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민 요구라든가 저희 내부적인 요구에 의해가지고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좀 회복하자. 그리고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복지 차원의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의 목적은 테니스장 주변 지역주민들의 체육 진흥이 저희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저희 도로사업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도로관리기관을 운영해야 되는 일종의 안전과 책임을 진, 그러니까 공공성과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그 부분이 약간 병립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위탁이라고 하는 사업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000 위원〉

- 우선 일단 저도 취지나 활용방안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은 차치하고 효율적으로 이게 이용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운영자가 너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서는 안 되고, 이익이 또 너무 작으면 운영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 원래 계획상 운영자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의 규모가 궁금한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이익이 나오기 위해서는 원가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익이라는 게 수익과 비용의 차감액인데 하나씩 나누어서 본다면 수입을 할 때는 일단 운영료가 있을 것이고, 운영료라 함은 이 비슷한 사업을 하는 서울한강공원에 비슷한 테니스장들의 운영료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검토해 보셨는지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원가 계산한 내역서를 봤는데 인건비에 연동되지 않는 비용들, 예를 들어서 경상개발비, 세금과 공과, 수리·수선비 이런 것들은 인원 수와 인건비와 비례하지 않는데 이게 기업경영 분석상 템플릿을 참고하셨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가 추정을 할 때 조금 더 적합한 방법은 없었는지.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주관부서 (도로관리과)〉

- 저희도 말씀하신 그 부분이 최초에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걱정을 할 때 제일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희 테니스장이 도로 사업소에 2개가 산재되어 있고 2면씩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까 말씀하신 장충체육관이라든가 한강 쪽에 있는 곳, 그 다음에 인재개발원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니스장을 다 검색을 해봤는데 그쪽은 짧게는 9면, 많게는 한 20면 이상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라든지 효율성이 훨씬 높은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게 그냥 너무 맡겨버리면 수익성만을 너무 추구하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이용자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을 좀 해가지고, 향후 한 3년 정도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지켜보면서 이용자 현황도 지켜보고, 만족도 현황도 지켜보고, 그리고 저희가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걸 나중에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적절한 수준을 맞춰놓은 다음에 저희가 너무 과다하게 만약에 비용을 받게 되면 사업자가 안 들어올 것이고, 너무 적게 받으면 또 사업자에 너무 많은 이익이 가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사용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원가계산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3가지, 직접재료비 하는 방법, 직접노무비 하는 방법, 직접원가를 계산하는 방법 등 한 3가지 방법을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제시한 직접원가법에 따르는 것이 그래도 비용이 제일 작더라. 그래서 저희가 직접원가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하게 되었고.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원가회계 이

론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처음 해보는 것이어서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저희가 자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을 쓴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적인 기관에서 그렇게 분석이 돼 왔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직접경기 말고 간접비용들,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비용들은 추후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회계라든가 해가지고 정산이라고 하는 절차를 또 거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저희도 한 3년 정도 운영을 해보면 정확한 원가와 수익, 이런 것들을 확신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테니스장이 하고 있는 사용수익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여전히 이렇게 민간위탁을 한 번 더 진행을 할지, 그건 그 후에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감사합니다. 일단 말씀 주신 내용을 좀 운영을 해봐야 어느 정도 구조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이해가 돼서, 아니면 타 사업장의 운영실적들을 알 수 있잖아요? 비슷한 사업을 한다면 원가 구조가 비슷할 것이고. 그래서 원가가 먼저 나와줘야 이 원가를 뛰어넘는 수익을 BEP를 맞추는 정도의 이용료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용료도 적합한 수준으로 산출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타 사업장들을 좀 더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주관부서 (도로관리과)〉

-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타 사업장 관련해가지고 현재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 이용료가, 결국은 저희 수입이 크게 2가지 부분이지 않습니까?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이용료가 있는 부분이고, 강습료라고 하는 큰 수익이 있는 건데, 사실 저희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은 강습료가 아마 차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습료는 타 일반적인 강습료보다는 한 10~20% 저렴하게 지금 저희가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용료에 있어서 보면 저희가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4면에 한 1만 원 정도의 이용료를 현재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면밖에 안 되고, 2개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곧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분석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한 2만 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게 되면 이게 밸런싱이 맞춰질 것이라고 원가분석이 되었는데, 다른 사례를 찾아보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정도면 대충 원가분석이 크게 예상하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용료라고 하는 부분과 강습료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전체 원가와 지출이라고 하는 부분의 밸런싱이 지금 현재 요청드린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보면, 일단 그림 수탁자가 너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탁자 입장에서 극단적으로 이익이 가장 높은 케이스는 수탁자가 예를 들어 강사로 겸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강사로서의 이익과 수탁운영 이익을 정산을 한다고 하지만 일부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일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주관부서 (도로관리과)〉

- 이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캡 상한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 현재 원가가 수입이 한 3억 5천 정도가 되고 지출이 3억 3천이라고 하는 캡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적정하게 수탁자하고 위탁하는 저희하고 나중에 수익을 같이 세어하는 것을 다 당연히 저희가 협약을 통해가지고 진행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과도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게 결국은 인건비 부분에 한 2억 6천 정도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이 저희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좀 높은 임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관리자 2명, 그리고 강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강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업하는 강사료의 한

80% 정도쯤 했기 때문에 크게 수탁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가거나 하는 구조는 아닐 것이다라고, 저희가 구조도 그렇게 짰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각 동부·남부 해서 코트 하나씩은 기존의 종전 인근 주민 이용하는 자들하고 사업소 직원 우선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걸 나중에 민원 소지가 없어요?

〈주관부서 (도로관리과)〉

- 민원이라고 하면 외부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을,

〈000 위원〉

- 공정하게 이렇게 개방을 해야 될 텐데, 특히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다시 시작을 한다면. 그런데 일단 들어오면 우선 일단 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주관부서 (도로관리과)〉

- 맞습니다.

〈000 위원〉

- 특히 직원들이 우선 이렇게 고려된다면.

〈주관부서 (도로관리과)〉

○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설의 특성상 현재는 직원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직원만 평일 낮에는 당연히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고, 그것을 저희가 직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부터 계속 그 부분은 논란이 됐었고. 저희 조례에도 직원들에 대해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용시간은 현재 나와 있는 대로 최소화해가지고 당연히 주간에는 직원들이 이용하지 않을 테니까 그것들은 다 저희가 제외를 시킨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저희가 이용자 만족도라든가,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검증을 해 나가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000 위원>

○ 시간이 22시까지 하면 안에 시설물 관리는 문제가 없나요?

<주관부서 (도로관리과)>

○ 시설물 관리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000 위원>

○ 22시까지 야간까지 개장을 하면 외부인들이 들어와 있을 텐데, 그러면 도로사업소 내부 시설물에 대한 보안이나 안전 이런 건 문제가 없냐라는 거죠.

<주관부서 (도로관리과)>

- 예,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부터 내부적으로 계속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설물을 어떻게 저희가 개조를 했냐 하면 동선을 아예 분리를 해가지고 도로사업소에 들어가는 동선하고 테니스장에 들어가는 동선을 지금 별도로 분리하는 공사도 저희가 별도로 진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분들이 도로사업소 안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도 같이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000 위원>

- 도로사업소 직원분들 중에 어느 포션이 정해지나요? 사용할 수 있는 인원 비율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도로사업소 같은 경우에 무료로 이용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주관부서 (도로관리과)>

- 포션을 딱 정해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저희가 예약 시스템 상에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권리,

<000 위원>

- 그럼 그분들은 무료인 건가요?

<주관부서 (도로관리과)>

- 네, 직원분들은 지금 무료로, 저희가 조례상으로도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리고 9시까지 개방을 하시게 되면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는 분은 도로사업소 직원인가요? 아니면 민간위탁업체가 되나요?

〈주관부서 (도로관리과)〉

- 당연히 수탁자가 예약시스템, 그다음에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라든가, 그다음에 시설물의 정비, 그런 것까지도 다 수탁자의 업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000 위원〉

- 세입 계산하실 때 지금 이용률을 몇 % 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수입을 추정하신 건가요?

〈주관부서 (도로관리과)〉

- 한 70% 정도쯤. 그런데 저희도 계속 말씀드렸다고 운영을 해봐야지 정확하게 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습, 결국 가장 큰 부분이 그 2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한 번도 안 해봤던 것이라 가지고 저희가 고민 중입니다.

〈000 위원〉

- 이용료 관련해서 여기 수입산출표에 월 이용시간이 평일 305시간으로 들어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럼 70%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일 것 같기는 하고. 이용률 같은 것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유사사업들을 보면 조금 더 시행착오 없이 좀 더 빠르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관부서 (도로관리과)〉

- 그래서 이용료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검색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교육원의 4면에 1만 원,

〈000 위원〉

- 이용률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관부서 (도로관리과)〉

- 이용률 부분은 저희가 월드컵공원하고 장충테니스장의 일반이용현황을 감안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월드컵공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 한 70% 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차용을 했고. 그리고 강습료도 월드컵공원에서 하고 있는. 그래서 시간당 한 13만 원 정도, 주말 기준으로는 주 1회 강습을 받았을 때 월 기준으로 한 16만 원 정도 해가지고 월평균 연인원 한 140명 정도가 평일, 주말에 이용하는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차용을 해가지고,

〈000 위원〉

- 그럼 하나 궁금한 게 수탁자는 예상보다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해서 만약에 비용보다 수입이 더 적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관부서 (도로관리과)〉

- 그것은 수탁자의 리스크가 될 것 같고요. 다만 방법은 결국 2가지 지 않습니까? 완전 무제한 경쟁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풀어주는 것보다는 당연히 리스크가 적게 될 것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는 것이고.

저희가 현재 뽑아놓은 원가보다 낮지는 당연히 않을 것이고. 저희가 기준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수탁자의 리스크로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저희가 이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질의·답변을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서 관계자는 퇴장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관부서 퇴장)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제가 참고사항으로 좀 말씀드리면 「공유재산법」에 수탁기관이 미리 시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고 관리하는데 이용료를 징수해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 수입으로 하는 협약 체결이 가능하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가 분석을 해서 그보다 더 초과되는 금액이

있으면 그 업체의 수익으로 가능하다는 법적인 근거는 있고. 참고 사례로 아직 오픈은 안 했는데 한강에 있는 카페하고 호텔이 하반기에 개장하거든요. 그것도 자립형으로 저희가 승인을 해줬는데 그 경우에 최종 협약 체결한 게 원가 분석한 것보다 수입이 적으면 업체가 그냥 감수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높으면 한강사업본부랑 업체가 반반씩 나누어 갖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최종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000 위원>

- 직원들은 무료로 해서 어쨌든 우선권을 준다고 돼 있는데 그게 염려스럽거든요. 어쨌든 나중에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포션을 정해놓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일정 기간을 정한 걸로 보입니다. 보니까 시간대가 토요일, 일요일 중 1일 오전 9시에서 13시, 또는 오후 13시부터 17시. 이 시간대에 대해서,

<000 위원>

- 보통 그때 많이 치죠.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렇게 됐는데, 같이 하는 시간이라는 한데 이게 기존의 도로사업소 직원들의 체력관리나 건강관리 차원에서 제공하던 것을 시민들에 제공하는 것만큼,

<000 위원>

- 취지는 좋은데 괜히 굵어 부스럼 만드는 것 아닌가.

<000 위원>

- 원래부터 직원 복지 차원에서 했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굳이 열어서 욱먹을 것 같다 이거죠.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일단 조례까지도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돼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을 시민에게 주지 말자, 우리가 그걸 결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이용하시려면 공공예약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오픈되는 날 클릭을 빨리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시는 건데 항상 이 시간대에는 누군가가 먼저 예약을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직원들이 쓴다, 그것은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000 위원>

○ 직원들은 그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식으로 예약을 하는 건가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동시에 오픈돼서 누르지는 않을 것 같고 별도로,

<000 위원>

○ 별도로 더 편한 시스템으로 예약을 하는 건가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시스템은 같은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부 하루 전에 오픈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000 위원>

○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좋은 시간대나 이것은 다 내부에서,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아니요. 여기 시간대를 정해놨더라고요.

<000 위원>

○ 그런데 그게 9시부터 1시, 1시부터 5시면 좋은 시간대 다 끝나고 5시부터 9시만 남게 되잖아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토요일, 일요일 중 하루 오전이거나 오후 그 타임에 한 번이니까,

<000 위원>

○ 도로사업소 거기 직원이 몇 명인가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거기 도로사업소 직원들이 몇이 있더라도 그 동네에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테니스 치는 게 아니고. 평일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일단 1차적으로 그 부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000 위원>

○ 혹시라도 그게 어느 비율 이상이 될 때는 약간 한다는 그 정도만 조금 하면 안전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너무 뚜껑 열어보니까 갑자기 다 테니스만 친다 이럴까 봐.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직원들이기 때문에 주중에는 못 쓰잖아요. 시민들에게 다 개방되는 것이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중 오전, 오후 한 타임이거든요.

<000 위원>

○ 직장 가진 시민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중에 직장 버리고 와서 테니스는 안 치니까.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일단 직장체육시설에서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취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000 위원>

- 자립형이다 보니까 수익은 조금 나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고려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주심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저는 걱정 권고가 맞을 것 같고요. 조직담당관님이나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일단 타 사업장, 유사 사업하는 사업장 대비 그것과의 비교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약간 해 봐야 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답변과 조금 다르게 자꾸 다른 얘기를 하셔서 제가 봤는데, 일단 제 기본취지는 예산담당관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타 사업장 비교가 이게 똑같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원가구조가 똑같은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내용과 상관 없이 그냥 외부 기관에 의뢰했다, 이러한 분야의 비즈니스는 이리이러한 원가율이다, 예술 이런 것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전혀 맞

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립형 같은 경우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가 확정돼야 그것을 초과하는 수입을 위해 이용료가 산정될 것인데 일단 베이스가 너무 불명확하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차피 사업소마다 룸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용률 자체는 70%가 넘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시간대에 1명만 들어오면 되는 그런 구조라서.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서울시랑 초과이익에 대해서 나누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사업계획 자체가 너무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권고사항으로 타 사업장과 구체적인 비교를 좀 해서 다시 심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7번 안전 주심위원님 의견이 지금 적정 권고인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번 안전을 적정 권고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다수〉

○ 없습니다.

〈위원장〉

○ 없으시면 7번 안전은 적정 권고로 의결하겠습니다. 오늘의 핫한 안

건이었습니다.

〈안건8〉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기회 확대 운영(사무형 재위탁)

〈위원장〉

- 그럼 8번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저소득층 음악 영재 발굴 및 교육기회 확대 운영”으로, 사무형 재위탁에 관한 것입니다. 민간위탁심의팀장님의 요약보고를 듣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8번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음악 영재 발굴 및 교육기회 확대 운영 사무입니다.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에 있습니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 받고 있고요. 금년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공모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저소득층 음악 영재 선발 및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론 및 실기수업, 1대1 수업입니다. 합창, 합주 등 연주회 개최 등의 사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8년부터 저소득층 음악 영재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표를 보시면 그 사업은 교육인원 100명으로 건국대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권역별 운영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권역별 균형

있는 교육 및 운영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성과 제고를 위해 별도 민간위탁사무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사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음악이나 미술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좀 성과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위탁 시에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예산담당관 팀장님의 예산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인건비의 경우는 3명분 인건비를 요구하여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인건비 예산은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업비의 경우는 예산규모 대비 57% 정도로 적정해 보이나 내년도 선발인원을 285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올해 사업성과를 고려해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비의 경우는 예산규모 적정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적정한 것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부서 관계자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주관부서 입장)

〈위원장〉

○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장 000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저소득층 음악 영재를 발굴하고, 그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기존에 숙대가 2020년도에 출발한 신규 민간위탁 된 사업인데 이게 한 번 2년 하고 재계약해서 3년 돼서 끝나서 재위탁을 심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한 건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약자와의 동행과 연결된 사업이라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사업의 취지나 의도, 그다음에 진행현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이해했고요. 이게 이렇게 2년 혹은 재위탁을 해서 한 산학협력단이나 운영단체가 어쩔 수 없이 3년~5년 정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이렇게 됐을 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연차별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 2가지 좀 여쭙보고 싶습니다.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 기본적으로 저희가 2026년도, 2027년도까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생들 인원을 아무래도 저희 사업이 저소득층이 아무래도 예술 쪽이 약간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결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있는 단계에서 한 270명인데 300명 그 이상까지 계속 끌어올릴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게 계획이고요. 이걸 예술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가는 말씀하신 대로 조직과에서 평가도 해주고요, 학교 자체에서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보고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000 위원〉

-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건국대학이나 한양대학이 연차가 좀 길잖아요. 그런 데 비해서 숙명여대가 코로나도 있었고, 이런 것 안에서 수강생이나 상 받는 숫자나 이런 게 다른 데보다 좀 낮은 게 어찌 보면 조금 지적되는 요소인 것 같아서 그 숫자에 목표를 가지고 제시나 하는 게 궁금해서 평가에 대해서 여쭙본 겁니다.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 정확히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사실은 이 자리에 와서 3년째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고요. 당초 목표는 권역별 시설을 배치하고, 강북권에 특히 건대 중심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쪽에만 거의 40~50% 아이들이 아무래도 초등학생 이니까 근처로 오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서북권에, 아니면 서남이 든 흩어져서 권역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평가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기존의 사업과 차별화가 안 된다고 약간 평가를 내시면서 제가 그때 보니까 약간 계획이 수정되면서 원래 취지대로 영재 발굴이 아니라 여기는 약간 미래 영재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전공자가 아니어도 약간 끼가 있거나 영재기가 있으면 발굴하는 쪽으로 속대는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막상 와서 보니까 하는 역할은 똑같은데, 그리고 이쪽 속대 쪽에는 아이들이 보면 50명이었기는 했지만 이쪽은 100명이고. 방향을 이렇게 잡아 놓으니까 여기는 해보고 싶어도 계속 미래 영재만 하고, 전문가로 키워주고 싶어도 아이들은 계속 요구가 있는데, 그런 약간 한계가 있어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목표 인원이 저쪽은 애초에 조금 더 전문가 아이들을 키워서 하니까 애들이 예중이든 예고든, 하다못해 연결해서 대학까지도. 그래서 건대가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는 16세에 최연소 서울대까지 입학시키는 실적까지 낸 게 건대고요. 속대는 그 반면에 그냥 폭넓게 두루뭉실 뽑다 보니까 당초 취지하고도 약간 안

맞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하면서도 만약에 해주시면 방향을 약간 건대처럼 열어서, 물론 취약계층을 위주로 뽑기는 하지만 전문가 아이들을 조금 더 끼 있는 애를 뽑아야 되지 않는가. 그럼 거의 똑같은 레벨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000 위원〉

○ 공개모집에 대해서,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 공개 모집합니다. 네, 맞습니다.

〈000 위원〉

○ 저는 거기까지입니다.

〈000 위원〉

○ 대상이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 네, 맞습니다. 그게 약간 차이가 건대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뽑는 것이고, 아까 말대로 약간 그런 차별화 때문에 숙대는 그냥 초등학교만 뽑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생이 약간 연계성도 안 되고.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가고 싶은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아이들이 건대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건대는 약간 더 특별한 장점이 있다 보니까 지원하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중학교까지 문을 여는 것도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가 맞습니다.

〈000 위원〉

○ 이게 음악 영재라고 했으면 모든 악기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 네, 맞습니다. 물론 건반악기 피아노 위주로 가기는 하지만 바이올
린이든 플루트이든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도 들어와 있습니다.
좀 자신 있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담당하다 보니까 가서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눈빛이 정말 다르고요, 처음에 입학식 할 때 보고
수료식 할 때 가서 보면 아이들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꼭 영재여
서 음악을 전공 안 해도 아이들이 되게 창의적으로 그 안에 가서
융합교육을 배우다 보니까 음악만 배우지 않아요. 춤도 배우고 컴
퓨터도 배우고, 막 이런 교육을 배우다 보니까 애들이 되게 창의적
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혹시 또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서 관계자는 퇴장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관부서 퇴장)

〈위원장〉

○ 주심위원님께서 검토의견,

<000 위원>

○ 좋은 사업이고요, 굉장히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고. 건대와 숙대를 하면서 어떤 변별력을 가져야 되는지 그 사업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어서 사업의 계획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혹시 주심위원님 의견 이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들 있으십니까?
그러면 8번 안건을 적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8번 안건은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안건9> 운현궁 관리 및 운영(시설형 재위탁)

<위원장>

○ 마지막 안건입니다. 9번 안건은 문화재관리과의 “운현궁 관리 및 운영”으로, 시설형 재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심의팀장님 보고 부탁드립니다.

<담당 공무원 (조직담당관)>

○ 9번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현궁은 아시다시피 창경궁 인근에 위치한 흥선대원군의 사저입니다. 1977년에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흥선대원군의 후손이 계속 관리하던 것을 1991년도에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보수공사를 하고 현재 모습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최초 민간위탁은 '98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금년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며, 공모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할 예정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운현궁 관리 및 운영사업은 국가유산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문역량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운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 문화행사나 체험프로그램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유물전시관이라고 있는데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관리나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차기 위탁이나 아니면 그 전이라도 품질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그럼 예산담당관 팀장님의 예산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예산팀장 (예산담당관)>

- 먼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 내역은 저희가 사후에 냉방비, 그리고 조명 내역으로 확인해서 사업비랑 운영비 부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인건비 부문에서 홍보행사 인력 한 명분을 증원한 부분에 대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부서 관계자를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주관부서 입장)

<주관부서 (문화재관리과)>

○ 안녕하십니까? 문화재관리팀장 000입니다.

<위원장>

○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예산을 보면 '24년 대비 '25년도 보면 인건비는 비중이 증가를 하
고 사업비는 비중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은 증가하기는 했
는데 이 사업 특성상 인건비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인
데 이게 걱정하신지.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관부서 (문화재관리과)>

○ 일단 지금 현재 인력이 9명인데요. 주말 운영도 하고 있고, 평일에
또 야간에 행사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업무가 과부하
가 걸려가지고 내년도는 한 명 더 저희가 추가로 고용을 해서 인
건비 포션이 늘어났고요. 사업도 뭔가 내년도부터는 좀 더 야간문
화 활성화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야간문화
활성화 사업도 저희가 뭔가 이 사업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

를 조금 증가를 시켰는데 총사업비가 7억 6천만 원 되는데 총사업비가 좀 작다 보니까 10명 정도 저희가 고용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사홍보 쪽에 한 분을 더 증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 프로그램은 동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행사홍보 쪽을 하는 것은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획하거나 그런 쪽으로 좀 더 예산이 편성 됐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노력들은 안 하고 기존 동일한 그런 사업들만 하고 계셔가지고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발굴 노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주관부서 (문화재관리과)〉

- 현재도 지금 저희가 운현궁이 대원군이 살았기 때문에 올해도 대원군을 소재로 해가지고 뮤지컬, 연극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도 저희가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가야간문화 활성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야간 국악콘서트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더 횟수를 증가시키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그리고 보니까 '24년 대비 '25년 개선방향 등을 작성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시한 걸 보면 문화본부 포털 및 리플릿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방안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주관부서 (문화재관리과)〉

-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인스타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스타 노출이 좀 적다 보니까 업체랑 지금 인스타 활용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요즘에 저희가 뭔가 기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젊은 친구들을 타겟으로 홍보 수단을 좀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재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업의 효과성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과지표로 운현궁 방문자 수 등 이렇게 작성해 주셨어요. 요 성과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뒤에 보면 참여자 만족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과지표에 대한 수정 보완이라든가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관부서 (문화재관리과)〉

- 위원님 그 지적사항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부서랑 좀 더 협의해서 시민분들이 더 뭔가 활성화된 측면을 느낄 수 있도록 평가요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이상입니다.

<000 위원>

- 위탁을 굉장히 오래 하시면서 이렇게 쪽 보면 다양한 기관들이 맡았는데 이것을 만약에 공개모집을 하면 이 기관들이 다 경쟁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한 군데만 들어오나요?

<주관부서 (문화재관리과)>

- 보통 여러 업체가 지금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 쪽에 항상 뭔가 풀이 있기 때문에 공고를 유심하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000 위원>

- 그래서 제가 보기에선 운영의 효과성 관리 측면도 되게 중요한데, 효율성도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홍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대상으로 어떤 방문객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고객 분석들, 방문객 분석들을 통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0대들이라든가 20대,

30대 연령층마다 홍보수단도 달라지고요 프로그램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어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개선방안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조금 단편적으로 하셔서 개선방안에 대한 것도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강화될 필요도 느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보완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도 간단하게만 주시겠어요?

<주관부서 (문화재관리과)>

-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현궁이 어르신 분들도 많이 관람하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구라든가 종로구의 어르신 단체라든가 어르신복지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달에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지고 어르신 대상으로 국악콘서트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때는 어르신복지관 위주로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좋아하셨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었고. 좀 더 복합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보고 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000 위원>

- 선제적으로 홍보라든가 프로그램을 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부서 관계자는 퇴장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관부서 (문화재관리과)〉

○ 감사합니다.

(주관부서 퇴장)

〈위원장〉

○ 주심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저는 적정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 혹시 적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9번 안건을 적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9번 안건은 적정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11시 53분, 폐회】